

청소년 수련활동 실태조사*

송 광 성**
박 성 희
정 문 성
김 경 준

- I. 서 론
II.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태
III.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에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그러한 활성화정책을 세우기 이전에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여건과 실태가 조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수련활동의 내용을 조직화한 수련거리,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도할 지도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따라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 여러가지 여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전문가, 언론인, 또는 현장지도자 등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제기했었다. 또는 여건이 부족하기 보다는 기존의 여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옳은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히 밝힐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건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또는 여건이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들을 엄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이전에 개략적인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에 관한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3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수련활동 실태조사」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송광성(연구위원), 박성희(선임연구원), 정문성(연구원), 김경준(연구원)임.

개략적인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추후 연구를 위한 안내와 현재의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의 개략적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수련활동 실태조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교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표본은 전국단위로 성별, 학교급별, 학교 설립별, 지역별로 계층화하여 각 범주별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할당표집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집단은 학교단위로 할당하였으며, 조사대상 학교는 한국교육연감 부록인 '교육명부'(1991)에 의거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국 56개교의 중학교와 80개교의 고등학교, 총 136개교에서 학생 4,000명, 학부모 1,400명, 그리고 600개 중, 고등학교(각각 300개교)의 청소년지도자 600명 교장 6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실태조사를 위하여 1993년 현재 청소년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32개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설문내용은 개인적 배경과 함께 연구문제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지도, 수련활동의 개념, 수련활동의 필요성, 수련활동 주최별 참여실태, 수련활동의 문제점, 수련활동의 과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학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수련활동은 극기훈련, 수학여행, 간부수련회, 야영, 소풍, 사생대회, 백일장, 합창대회, 기타 교과외 활동으로 나누어 참가학생수, 인솔교사수, 참가횟수, 참가시기, 참가장소, 참가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수련활동은 각 단체별로 참가

청소년과 지도자 현황,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현황, 지도자 교육현황, 청소년 관련 시설 사용현황, 회원교육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1993년 7월 2일부터 7월 19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중·고등학생은 각 학교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연구의 목적, 취지, 설문조사 실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설문조사계획안에 따라 학교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후, 연구원 및 현지조사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거나 연구원이나 현지조사원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학부모는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에 무작위로 표집하여 실시되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또는 학생주임교사, 교장 그리고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표집대상인 청소년, 학부모, 교장, 지도자의 배경변인별 특성은 청소년은 남자가 50.4%, 여자가 49.6%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7.4%, 고등학교가 52.6%이다. 학교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가 60.3%, 사립학교가 39.7%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6.3%로 가장 많고, 전북지역이 3.0%로 가장 적으며,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가 전체 53.1%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의 표집은 남자가 44.2%, 여자가 55.8%이며, 연령별로는 41세에서 50세까지의 학부모가 64.3%,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5.6%, 지역거주지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21.0%로 가장 많다.

교장은 남자가 90.5%, 여자가 9.5%로 남자교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

교가 51.8%, 고등학교가 48.2%, 학교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가 54.9%, 사립학교가 45.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5.0%, 중소도시가 25.5%, 읍·면이 39.5%로 각각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남자가 93.5%로 여자 6.5%보다 훨씬 많다. 연령별로는 35세이하가 29.6%, 36세에서 45세가 39.0%, 46세에서 55세가 25.8%, 56세이상인 5.6%로 45세이하의 교사가 가장 많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9.0%, 고등학교 51.0%로, 학교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가 52.4%, 사립학교가 47.6%로 나타나며, 청소년단체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53.3%로 약간 많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38.8%로 가장 많고, 읍·면이 36.0%, 중소도시가 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II.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태

본 연구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실태에 분석은 주로 청소년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학부모, 지도자, 교장의 의견과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실태, 청소년 수련활동의 평가, 참가 희망 수련활동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기술하였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식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수련활동에 대한 인지, 수련활동의 개념에 대한 인식, 수련활동의 필요성, 수련활동의 내신성적 반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1)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관심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경로도 조사하였다.

(1)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 청소년(50.6%)과 학부모(61.4%)의 과반수가 수련활동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하였다. '용어는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자도 상당수(청소년 38.5%, 학부모 23.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청소년 5.2%, 학부모 12.5%)'거나 '용어도 전체 들어보지 못했다(청소년 5.4%, 학부모 2.8%)'는 응답자는 적어서, 대부분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수련활동이라는 용어만을 들어보았거나 내용을 조금밖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청소년 수련활동 정보 입수경로

수련활동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경로는 청소년과 학부모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학교', '텔레비전·라디오 등',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은 수련활동 입수 경로로 '학교(2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텔레비전·라디오 등(24.0%)', '청소년단체(22.1%)'도 학교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친구(10.5%)’, ‘교회·사찰(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는 청소년과 달리 ‘텔레비전·라디오 등(31.6%)’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25.3%)’, ‘청소년단체(15.9%)’, ‘신문·잡지등(13.8%)’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학부모간에 청소년 수련활동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에서 차이를 보였다.

2)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관심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교사 및 교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지도자(84.8%)와 교장(83.1%)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하여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51.9%)과 학부모(48.2%)도 수련활동에 비교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지도자와 교장에 비해서는 그 관심도가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련활동의 개념 및 범주

그동안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학교장이 실제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 정립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수련활동 장소, 수련활동 기간, 수련활동 목표의 세영역으로 임의로 나누고, 종합적으로 수련활동 범주를 재차 확인하였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장소

청소년 수련활동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연(산, 들, 바다 등)’, ‘수업을 제외한 학교내·외’, ‘학교 밖’, ‘수업을 제외한 학교내’, ‘기타’의 5가지 장소를 제시하였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반수 이상(각각 68.9%, 59.8%)이 수련활동으로 ‘자연(산, 들, 바다 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내·외(각각 17.1%, 25.5%)’, ‘학교 밖(각각 11.2%, 11.9%)’ 등의 순서로 지적했다.

지도자와 교장의 경우도 상당한 응답자(30.4%, 23.8%)가 ‘자연(산, 들, 바다 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30.4%)’을 적합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학교 밖(각각 43.3%, 46.3%)’을 이 보다 더 적합한 수련활동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2) 청소년 수련활동 기간

청소년 수련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당일’, ‘1박 2일 이상’, ‘당일과 1박 2일’, ‘기타’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다.

수련활동이 실시되는 기간에 대해서 응답 청소년(56.1%)과 학부모(56.2%)의 과반수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1박 2일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었으나, 지도자(54.0%)와 교장(60.9%)은 1박2일 이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당일에 진행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당일과 1박 2일 이상’으로 보고 있어 청소년 수련활동을 청소년과 학부모에 비해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수련활동 목표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체력증진’, ‘지식축적 및 기능향상’, ‘정서함양 및 품성개발’, ‘시민의식 함양’, ‘스트레스 해소’,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 학부모, 지도교사, 교장 모두 ‘정서함양 및 품성개발’을 수련활동목표로 가장 강조하고 있었으며, ‘시민의식 함양(사회참여)’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도자와 교장이 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가 컸으며, 청소년은 스트레스 해소를, 학부모는 체력단련을 수련활동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자의 76.0%와 교장의 83.3%가 ‘정서함양 및 품성개발’이 수련활동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이 ‘시민의식 함양(16.4%, 13.0%)’ 등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는 ‘정서함양 및 품성개발(40.6%, 57.0%)’을 강조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청소년은 그 다음으로 ‘시민의식 함양(17.5%)’, ‘스트레스 해소(15.9%)’, ‘체력증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는 그 다음으로 ‘시민의식 함양(12.5%)’보다도 ‘체력증진(16.0%)’에, 그리고 ‘지식 축적 및 기능 향상(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수련활동의 범주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극기훈련, 야영, 청소년단체활동, 수학여행, 간부수련회,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특별활동, 체육대회, 축제, 소풍, 백일장·사생대회 등, 기타활동 등 학과수업 이외의 활동중에서 평소에 어떠한 활동을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한 활동을 각

각 대상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극기훈련(90.8%)’, ‘야영(87.1%)’, ‘청소년단체활동(80.5%)’, ‘수학여행(54.1%)’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부모는 ‘극기훈련(87.6%)’, ‘야영(81.6%)’, ‘청소년단체활동(80.7%)’의 순으로 응답하여 청소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도자는 ‘극기훈련(97.8%)’, ‘야영(96.5%)’, ‘청소년단체활동(86.3%)’, ‘간부수련회(79.6%)’, ‘동아리활동(51.8%)’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교장은 ‘극기훈련(95.3%)’, ‘야영(91.6%)’, ‘청소년단체활동(87.9%)’, ‘간부수련회(84.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 수련활동의 필요성

수련활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청소년(81.5%), 학부모(70.3%), 지도자(95.0%), 교장(92.9%)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지도자(79.7%)가 가장 높았고, 교장(64.6%), 청소년(52.1%), 학부모(33.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부모는 그 인식 정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수련활동의 장점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교장에게 각각 두가지씩을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결과는 청소년(24.7%), 학부모(27.7%), 지도자(38.0%), 교장(36.1%) 모두 ‘인간관계 훈련 및 사회성 발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협동의식(청소년 17.5%, 학부모 16.8%, 지도자 19.4%, 교장 21.0%)’에도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체력단련(청소년 13.7%, 학부모 15.6%)’과 ‘책임의식(청소년 10.4%, 학부모 12.

0%)’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에 지도자와 교장은 ‘자발적(지도자 18.5%, 교장 21.9%)’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2. 청소년 수련활동의 현황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련활동 주최별 참가경험, 참가형태, 참가경비, 사전교육, 계획수립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경험

청소년 수련활동의 참가경험은 그 경험 유무, 참가동기, 참가경로, 참가정도를 조사하였다.

(1) 참가경험 유무

수련활동 참가경험의 유무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련활동 참가경험 여부는 제외하고 청소년단체, 사설학원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만 수련활동의 참가경험, 그리고 참가하지 못했다면 그 불참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수련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였다.

먼저 수련활동 참가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청소년의 44.5%가 청소년단체에서 주최한 수련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설학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주최한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1.6%로 청소년단체에서 주최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단체가 주최하는 수련활동은 주로 회원중심의 활동이고 이에 비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참가 동기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수련활동 주최별로 살펴보면 주최별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가 주최가 된 경우에 ‘자발적(각각 49.3%, 49.1%)’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련활동은 ‘자발적(26.9%)’으로 참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대신 주로 ‘지도자의 권유(58.8%)’로 참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련활동이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교육과정상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학교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련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3) 참가 경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의 51.5%, 학부모의 62.0%가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하여’ 수련활동에 참가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단체(청소년 21.0%, 학부모 20.3%)’, ‘사설학원 또는 사회단체(청소년 13.7%, 학부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단체활동 참여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의 참여 경험을 주로 학교를 통하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학교(38.3%)나 청소년단체(39.8%)를 통해서 수련활동에 고르게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가 정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가정도를 수련활동 주

최별, 수련시설별로 각각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주최별로 조사한 결과는 청소년단체의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31.7%,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44.5%로 수련활동 주최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회단체(‘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27.4%,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40.3%), 학교(‘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20.3%,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형태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형태를 참가횟수, 참가시기, 참가기간으로 나누어 수련활동 주최별, 수련시설별로 각각 조사하였다.

(1) 참가 횟수

청소년들이 지난 1년동안 수련활동에 참가한 횟수를 수련활동 주최별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수련활동을 주관하는 단체에 관계없이 수련활동에 대부분 1년에 1회 또는 2회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수련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응답 청소년의 반수 이상이 수련활동에 1회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회 참가가 20.0% 내외였으며, 3회 참가는 야영장, 심신수련장, 유스호스텔, 학교가 10.0% 조금 넘었고, 나머지 시설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회관의 경우는 5회 이상 참가한 경우도 11.8%나 되어 비교적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회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 청소년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중학교 학생들과 거의 비슷하게 대개 1, 2회 참가하는데 그쳤는데, 3회이상 참가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으며, 특히, 학생교육원은 94.2%의 응답 청소년들이 1회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참가 시기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여름을 이용하고 있었고, 겨울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 주최하는 수련활동의 경우에 비해서 사회단체(사설학원)에서 주최하는 수련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여름(76.0%)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사회단체(사설학원) 등이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참가 기간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기간을 수련활동 주최별로 살펴보면,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기관여부에 관계없이 수련활동의 참가기간은 대체로 ‘2박 3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박 2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 참가는 수련활동 주최중에서 학교(18.6%)가 가장 높았고, ‘3박 4일’은 사회단체(18.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경비

(1) 수련활동 경비충당 방법

먼저 수련활동 경비의 충당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주관하는 경우와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단체(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학생측 전액 부담’

한다는 응답이 52.2%로 과반수가 되었고, ‘공동 부담(38.4%)’, ‘주최측 전액부담(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학생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으나, ‘공동부담’도 41.8%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주최측 전액부담’ 등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설학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주최측과 학생이 ‘공동부담’하는 것이 53.0%로 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전액부담’은 26.0%, ‘주최측 전액부담’은 17.1%로 나타났다.

(2) 수련활동 경비 부담 정도

한편, 이러한 수련활동 경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정도는 수련활동 경비충당 방법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조사결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34.5%,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48.0%, 사회단체(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51.0%로 나타났다.

즉, 사회단체(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이 가장 부담되게 느꼈고, 그 다음이 청소년단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교육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수련활동의 내용이나 주의사항과 같은 사전교육을 어느 정도 받는지 수련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단체(사설학원)에서 주최하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청소년의 63.8%가 수련활동 사전교육을 ‘간단하게 받는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충분히 받는다’가 28.3%, ‘전혀 받지 않는다’가

8.1%로,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단체에서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54.6%가 ‘간단하게 받는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충분히 받는다’가 31.0%,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경우는 청소년 14.5%로,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청소년단체에서 사전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의 평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 수련활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도, 청소년 수련활동 후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변화,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 청소년 수련활동의 선결과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 정도

청소년 수련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도자와 교장에 한정하여 물어보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많이 실시되고 있다’는 응답이 지도자가 27.6%, 교장이 49.6%로 나타나, 교장이 지도교사에 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시 정도에 대해 비교적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지도자가 56.9%, 교장이 42.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수련활동은 그렇게 많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련활동 참가후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에 나타난 가

장 뚜렷한 변화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경우, 청소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 그리고 사설학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련활동 주관 단체에 상관없이 수련활동에 참가한 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변화한 내용은 '성격변화(학교 주최 37.4%, 청소년단체 주최 37.2%, 사회단체 주최 35.2%)'가 가장 많았고, 다음 '생활태도의 변화(학교 주최 25.3%, 청소년단체 주최 24.8%, 사회단체 주최 16.2%)'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수련활동 주최별 만족도, 시설별, 수련활동 요소별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1) 수련활동 주최별 만족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단체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단체에서 주최하는 수련활동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매우 만족' 48.9%, '약간 만족' 33.2%), 그 다음이 사회단체('매우 만족' 40.9%, '약간 만족' 32.7%), 그리고 학교('매우 만족' 30.0%, '약간 만족' 31.2%) 순으로 나타났다.

(2) 수련활동 요소별 만족도

청소년 수련활동 요소를 청소년 시설, 수련활동 프로그램, 수련활동 지도자로 나누어 그 만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① 시설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련활동 주관단체별로 청소년과 지도자에게 그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학

교에서 주관하는 경우 만족하는 정도가 28.9%로 나타났고, 보통이 청소년 34.4%, 불만족이 36.6%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주관단체별로 청소년과 지도교사에게 그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은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주관하는 경우 만족하는 정도가 31.7%로 나타났고, 보통이 39.2%, 불만족이 29.0%로, 만족하는 정도와 불만족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했는데, 청소년은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주관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 만족하는 정도가 34.3%로 나타났고, 보통이 37.9%, 불만족이 27.5%로, 만족하는 정도가 불만족하는 정도보다 많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으며 보통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도자에 대한 만족정도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단체와 사회단체(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수련시설과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청소년이 각각 46.0%, 51.4%로 나타났고, 보통이 각각 39.9%, 34.3%, 불만족의 경우는 각각 14.1%, 14.3%로, 불만족의 경우보다 만족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4)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장애요인

청소년 수련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와 달리 과

다한 비용, 안전문제, 학생관리의 어려움이라는 3 가지 선택문항을 지도자와 교장의 질문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20.1%), 학부모(20.7%), 지도자(19.0%)들은 ‘과중한 학교수업’을, 교장(18.0%)의 경우는 과중한 학교수업보다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족’을 수련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특히, 청소년은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부족(18.0%)’에 대해서 학부모나 지도자, 교장보다도, 그리고 학부모는 ‘수련활동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19.3%)’는 데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자, 교장보다도 더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는 ‘과중한 학교수업(20.1%)’을 수련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부족(18.0%)’,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족(16.3%)’, ‘수련활동 정보의 부족(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학부모는 ‘과중한 학교수업(20.7%)’, ‘형식적인 수련활동 실시(19.3%)’,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부족(13.6%)’,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의 부족(12.9%)’,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족(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상의 특성상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지도자와 교장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수련시설의 문제점으로 ‘기본적인 시설 부족, 낙후(61.1%)’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좁은 시설 공간(16.6%)’, ‘별 문제없다(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도 ‘기본적인 시설의 부족, 낙후(58.3%)’를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었으나, 그

다음의 문제점으로는 ‘안전시설 미비(17.6%)’, ‘좁은 시설공간(11.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학부모간의 차이를 보였다.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며 ‘시설에서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며 시설에서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28.8%)’,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와 지도자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며 시설에서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가 각각 40.0%, 33.5%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24.6%, 29.5%)’,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19.5%, 2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수련활동 지도자

수련활동 지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문항을 달리하였는데, 지도자와 교장에게는 청소년과 학부모에서 사용된 ‘지도자가 인간적이지 못하다’, ‘지도자의 안전지도가 미숙하다’는 항목을 제외시키고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상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수련활동 지도자의 문제점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지도자가 부족한 것을 가장 많이 지적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도자와 교장은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수련활동 지도자의 문제점으로 ‘청소년지도자의 부족(29.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도 29.0%나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적이지 못하다(19.5%)’, ‘기능이 부족하다(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별 문제가 없다(30.9%)’고 하는데 반해, 여자 청소년들은 ‘청소년 지도자의 부족(27.5%)’을 지도자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다(34.5%)’고 하는데 반해, 고등학생은 ‘청소년지도자의 부족(33.0%)’을, 그리고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별 문제가 없다(30.0%)’고 하는데 반해, 청소년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 지도자의 부족(30.1%)’을 각각 수련활동 지도자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응답하였다.

학부모도 청소년의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지도자의 부족(44.2%)’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고,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도 상당 부분(29.0%)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능 부족(7.7%)’, ‘지식 부족(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문제

수련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공통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청소년 38.1%, 학부모 38.7%, 지도자 57.6%, 교장 63.2%)’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는 ‘불건전한 친구(이성)관계’로, 교장은 ‘학업에의 지장’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보다는 지도자나 교장이 더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과의 학부모의 경우에는 수련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들간에 빈부의 차이를 느낄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도자나 교장보다도 더 큰 염려를 하고 있었다.

6) 청소년 수련활동의 선결과제

앞으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교장에게 각각 기술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 학부모, 교장은 ‘시설확충’을 청소년 수련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었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확충(26.8%)’, ‘수련활동 정보제공(14.3%)’, ‘프로그램 개발(13.5%)’, ‘학부모, 교사, 학교측의 협조(11.4%)’ 등의 순이었고, 학부모는 ‘시설확충(31.0%)’, ‘기타(18.6%)’, ‘기타(18.6%)’, ‘프로그램 개발(14.9%)’, 등 이었으며, 교장은 ‘시설확충(34.2%)’, ‘프로그램 개발(18.5%)’, ‘기타(17.4%)’, ‘학업부담 축소(12.5%)’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청소년, 학부모, 교장과 달리 ‘학업부담의 축소(24.9%)’를 청소년 수련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보고 있었으며, ‘학부모, 교사, 학교측의 협조(17.7%)’, ‘시설확충(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희망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위하여 앞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한다면 어떤 시기, 얼마의 기간, 어떤 주관단체, 어떤 장소,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1) 수련활동에 참가시기

수련활동 참가 희망시기에 대해서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교장에게 각각 조사하였는데, 특히 지도자와 교장의 경우에는 이를 시설별로 알아보았다.

수련활동 참가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름(청소년 55.1%, 학부모 56.2%)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시설별로는 야외시설은 주로 여름에, 회관형의 경우에는 특정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고르게 희망하고 있었는데, 특히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에는 야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겨울을 가장 희망하고 있어, 시설만 제대로 갖추기만 한다면 청소년 수련활동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때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2) 수련활동 참가기간

수련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참가시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교장 모두에게 조사하였으며, 지도자와 교장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알아보았다.

청소년과 학부모, 지도자, 교장간에, 그리고 시설별로 참가기간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희망하고 있었는데, 지도자나 교장은 당일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과 학부모에 비해서 보다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주로 1박 2일 이상의 활동을 원하고 있었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학부모, 지도자, 교장보다 긴 기간의 수련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만약에 현재의 수련활동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지도자, 교장이 평소애 생각하고 있는 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으로 수련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수련활동의 참가횟수

시설별 수련활동 참가횟수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교장의 대부분이 ‘연 1회’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2회’를 희망하는 경우는 지도자, 교장 모두 20%내외에 그쳤고, 3회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주 적게 나타났다.

즉, 지도자와 교장은 ‘연 1회’와 ‘연 2회’를 희망하는 경우가 야영장이 각각 73.6%, 22.5%이었으며, 심신수련장은 80.6%, 16.4%, 자연학습원은 79.5%, 16.4%, 청소년회관은 81.0%, 17.0%, 학생교육원은 82.7%, 17.3%, 학생과학관은 78.2%, 20.8%, 유스호스텔은 93.0%, 6.0%, 기타 시설은 82.4%, 5.9%으로 각각 나타났다.

4) 수련활동 주관 단체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주관단체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도자, 교장은 ‘청소년 단체’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는 대부분(72.5%) ‘학교’를 가장 희망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학교 이외의 수련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별로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수련활동의 장소

청소년 수련활동 장소중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야영장’에 참가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야영장(46.8%)’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심신수련장(16.0%)’, ‘유스호스텔(11.4%)’, ‘자연학습원(11.2%)’ 등을 희망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청소년의 경우와 같이 ‘야영장(35.8%)’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

며, ‘심신수련장(26.4%)’, ‘자연학습원(18.0%)’, ‘학생교육원(10.3%)’ 등의 순으로 참가하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수련활동 프로그램

가장 원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들은 ‘스포츠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학부모들은 ‘자연체험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청소년의 경우 ‘스포츠활동(34.9%)’을 가장 희망하였고, ‘자연체험활동(28.3%)’, ‘자아개발활동(11.6%)’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는 ‘자연체험활동(28.8%)’, ‘자아개발활동(18.7%)’, ‘봉사활동(15.5%)’, ‘스포츠활동(13.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학부모간에 희망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관해 차이를 보였다.

Ⅲ. 결 론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1. 수련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

수련활동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한 가정에 있어서는 소중한 자녀이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특정 부모나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계되어 이루어지는 활동도 단지 청소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지식위주의 편협된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조화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 수련활동은 인간관계 훈련 및 사회성 발달, 책임 의식, 협동의식 등 청소년기에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련활동의 유익성도 실제에 있어서는 입시경쟁의 열기로 인해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한채 그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지식교육에의 강조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는 수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며 일부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청소년육성의 막중한 책임을 담당해야 할 기성세대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한 가정의 자녀로서만 위치시켜 본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른 가정의 자녀를 자기 자녀와의 경쟁 상대자로 생각하고 학업 이외의 활동은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일로 생각하여 가능한한 그러한 활동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수련활동도 그러한 이유에서 활동이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 또는 가정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 및 청소년 관계 인사들이 수련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수련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칠만큼 지식교육에 치중하여 온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극단적인 입시위주의 지식편중의 교육속에서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은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단순히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정신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가선용이나 오락성활동이거나 학교교육의 내용과 거리가 멀거나 상반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모든 활동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교육적 효과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교육활동으로 학교교육을 강화시켜 주는 합리적인 상호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가진 교육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온 사회가 인간평가의 기준을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고 봉사의식, 협동의식 등 인간적인 다양한 측면에 두어야 하며, 이 때 비로소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육성을 위한 노력이 단지 구호에만 구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단체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련활동의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은 일시적이고, 총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

는 특정 단체나, 비조직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맡겨 진행되어서는 아니되며, 청소년단체와 같이 공인된 단체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도 청소년 수련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만족할만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각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만들어 진행한다기 보다는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임의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들의 업무과중 및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책임한계 등은 수련활동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련활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지도자나 교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단체로 학교보다도 청소년단체를 지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들 자신도 직접 참여한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여러 주관단체중에서 청소년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앞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단체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첫번째가 학부모들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이외의 모든 단체에 대하여 대체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청소년들을 그러한 단체에 가입시키거나 수련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단체가 임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게을리 할 것

이라는 우려 뿐만 아니라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나아 앞을까하는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에
는 물론 청소년단체에도 책임이 있지만 청소년단
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보다 본질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청소년단체를 바라보아
야 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는, 학교당국의 청소년단체활동 및 수련
활동에 대한 자세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청소년단체활동 및 수련활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단체가입
이나 수련활동에의 참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학업에의 전념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인적인 청소년육성을 이루
기 위해서는 단지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단체활동 및 수
련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진지하게 연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
동은 학교교육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지도자에 의
해서 제공되는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수행되
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하
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활동을 너무 틀에
박아,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에
게 상투적으로 대하면 청소년들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수련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넷째,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단체
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개
청소년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는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데 머물렀으

며, 각 단체가 장기적으로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에 뒤처
지지 않고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대중매체, 컴퓨터, 전화통신의 활용)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욕
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를 촉진시
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
요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들에게 제공
되는 수련활동 정보의 양과 질은 매우 빈약한 실
정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그 학교나 단체
에 국한하고 있어서 보다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등을 통한 정보도 대
개 행사성 프로그램이며 일정한 시간대에 정기적
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때에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체계적으로 선정하
고 보급하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데,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수련활동의
참가시기, 참가장소, 시설, 프로그램 등 수련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
록 청소년 수련활동 정보센터(가칭)을 설립,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센터
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 수련활동 관
련 단체의 프로그램을 취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년 관련 연구단체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전달에 있어서는 각 지역 방송국과의 긴밀한 연계하에서 TV, 라디오 등의 교육방송, 또는 청소년방송(가칭)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그 활동과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컴퓨터 통신이나 전화통신을 통한 각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련활동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수련활동 시설의 개선 및 확충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마련된 수련시설은 1993년 현재 274개 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어 국가에서도 그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밝히고 있다. 특히, 수련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교장은 모두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교장이 실제 수련활동을 계획할 때도 안정성을 가장 고

려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수련활동과 관련된 시설은 수련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적정치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수련활동 시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수련활동은 대개 여름동안에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겨울에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는 미흡한 수련시설로 인하여 특정 계절에 국한해 실시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수련시설의 개선 및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특정인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열의를 갖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한정된 예산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그들의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소년 관련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민간기업체들을 사회참여활동의 일부로서 청소년수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청소년정책이나 수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기업들의 수련활동 참여를 저해하여 온 여러 법적·제도적 규제조치를 합목적·적으로 신속성있게 완화하거나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청소년수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